

# 모든의 이상적인 BCS(신체충실지수) 만들기 위한 영양 관리

㈜팜스코 축산과학연구소 R&T팀장 홍중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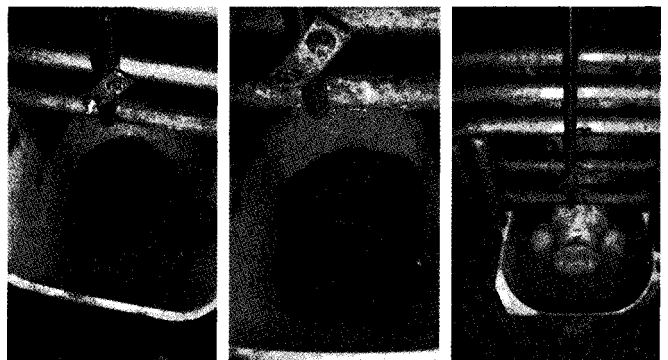
뉴스 보도에 따르면 7월 초 2주간 내린 비의 양이 1년 강우량의 30%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. 그때를 생각하면,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에 전국이 물에 잠기는 줄 알았다.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매년 혹서기가 찾아오면 살인적인 더위에 가쁜 숨을 붙여 쉬는 돼지를 보면 마음이 매우 안쓰럽다. 이에 우리 농장에서는 돈사 지붕 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여 지붕 위에서 불 뿌리고, 돈사 안으로 대형 팬을 이용하여 바람 불어 넣어주면서 돼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된다. 그러나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.

도부지 돼지가 일어나 사료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. 혹서기가 되면 사료회사에는 사료를 먹은 후 조금이라도 몸에서 열이 덜 발생하게끔 하기 위해 영양학적 노하우가 동원되지만 돼지 입장에서 보면 그저 사람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여길 뿐 여전히 가쁜 숨을 붙여 쉬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은 보통도 마찬가지이나 모돈은 달라야 한다. 이것은 다른 돼지들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. 왜냐하면 지금의 모돈 관리는 내년도 내 농장의 수익을 결정 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.

날이 더우면 사람이나 돼지나 밥 먹기 싫은 건 마찬가지다. 특히 포유돈이 넘다고 사료를 먹지 않으면, 포유 자돈을 키우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 몸에서 동원해야 한다. 그러면 포유기간 동안 포유돈 체중 감소량이 다른 계열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, 이는 이유 후 재귀발정 불량으로 이어져 번식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혹은 심한 경우 도태가 될 수도 있다. 다시 말해서 여름철 가장 중요한 핵심 관리는 포유돈 체형 관

리이며, 포유돈 체형 관리는 사료 섭취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. 혹서기에도 포유돈이 사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양돈 경영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?

혹서기에는 1회 주분하는 사료량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, 사료의 보관 방법은 물론 급여 방법에 있어서도 24시간 중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에 급여하는 정성도 필요하다. 이와 함께 사료 급여 방법에 있어 세심함이 요구된다. 최근 들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 급여 방법 및 급이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 개선이나 급이기 관리는 생산비 절감 차원을 넘어 혹서기 포유돈 사료 섭취량 증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. [사진]은 당사 우수농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. [사진]은 사료 급여 방법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, 포유돈 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먼저 보조 급수라인을 통해 물을 주고, 물을 다 먹으면 사료를 준 후에 다시 물을 줘서 사료 섭취량도 늘리고 섭취한 사료를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.



[사진 1] 혹서기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

이와 함께 급이기 관리도 잘 해야 한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. [사진2]에서 보는 것처럼 포유돈 급이기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. 이 사진은 작년 7월에 방문한 농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. [사진2]에서 처럼 급이기 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사육되고 있는 포유돈의 포유 자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 포유돈이 포유 기간 동안에 살은 얼마나 빠졌을 것이며, 그로 인해 이유 후 재귀발정은 어떻게 왔을 지에 대해서도 굳이 전산 기록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

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.

[사진4]는 최근에 방문한 농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. 개체 별로 포유돈 급이기 내 사료 섭취 상태를 확인하면서 급여한 사료를 모두 먹었으면 'O'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'X'로 표시하면서 다음번 사료 급여 시 참고하고 있었다.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세심하게 포유돈 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이 있다.



[사진 2] 육사기 포유돈 급이기 관리 실태

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 개사스 주립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[사진3]의 오른쪽 급이기처럼 앞에 준 사료가 급이기에 하나도 없다면 다음 번 사료 줄 때는 3.5kg 정도 급여하면 되고 급이기 내에 약 1kg 정도의 사료가 남았다면 다음 번 사료 줄 때 2kg 정도 주면 되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급이기 내 잔량을 기준으로 다음 번 사료 급여량을 결정하는 것이다. 이는 매우 귀찮은 일이며 이와 함께 포유돈 개체 마다 기록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낭비되는 사료도 절감하면서 포유돈에게 양질의 사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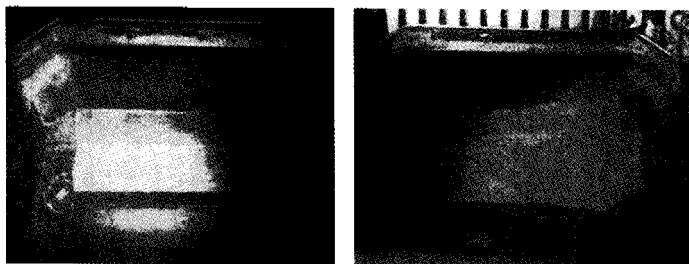
**포유돈 사료 섭취량 기록표 (kg)**

본명: 5A 7A

배정량:	2	3	4	5	6	7	8
잔량	1	2	2.5	3	3.5	4	4.5
잔량	0.5(O)	1(E)	1(E)	1.5(I)	1.5(I)	2(N)	1.5(I)
잔량	0.5(O)	1(E)	1.5(I)	1.5(I)	2(N)	2(N)	1.5(I)
잔량	5.9	5.3	5.9	5.1	5.1	5.1	5.1
잔량	9	10	11	12	13	14	15
잔량	5.1	5.7	6	6	6	6.3	6.3
잔량	1.7(K)	1.9(N)	2(N)	2(N)	2(N)	2.1(O)	2.1(O)
잔량	1.7(K)	1.9(N)	2(N)	2(N)	2(N)	2.1(O)	2.1(O)
잔량	1.7(K)	1.9(N)	2(N)	2(N)	2(N)	2.1(O)	2.1(O)
잔량	5.1	5.1	5.1	5.1	5.1	5.1	5.1
잔량	16	17	18	19	20	21	22
잔량	8.3	6.9	6.9	6.9	7.5	7.5	7.5
잔량	2.1(O)	2.3(O)	2.3(O)	2.3(O)	2.3(O)	2.3(O)	2.3(O)

[사진 4] 육사는 사료 급여 기록표

이상적인 BCS를 만들기 위한 모든 관리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. 그저 포유돈이 사료 잘 먹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. 하루에 3회 이상 사료를 나누어 주고, 사료를 주는 시간도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. 그리고 사료를 주기 전 시원한 물을 충분히 준 후에 사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.



[사진 3] 사료 잔량 기준으로 한 포유돈 사료 급여 방법

또한 다음번 사료도 먹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 막대기를 항분에 넣어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 되어야 한다. 그래야 이상적인 BCS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내년도 내 농장 성적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.